



패션 브랜드 빈폴과 협업한 고 한영수 사진가
6.25 전쟁 이후 서울의 모습 생생히 기록
풍부한 미학과 놀라운 기획력의 구도와 앵글
외국에서 먼저 알아본 한국 대표 사진가

(...2 페이지에 이어)

한 대표는 “아버지의 사진은 전후의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즐겁게 뛰어 노는 아이들, 잘 차려 입은 멋쟁이들, 자신의 생업에 열심인 길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생명력을 발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광모 감독의 영화 ‘아름다운 시절’(1998)은 한영수가 살아생전 여윌던 사진집 『삶』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풍경을 재현한 영

화라고 한다. 흑백을 컬러로 만 바꿨다 할 만큼 한영수의 사진으로 시대 고증을 한 것이다.

사보이 호텔 앞 커플, 양품점 마네킹을 바라보는 어린 소녀, 모피 코트를 입은 여인, 잡화점 앞의 남녀. 외국인들이 한영수의 대표작으로 꼽는 사진 속 멋쟁이들은 또 어떤가. 50~60년대 한국에 이런 멋쟁이들이 존재했다는 말야, 저절로 감탄이 쏟아진다. 심지어 잡화점 앞 남자는 담배를 피우는(당시 예!) 여성, 무심한 남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입견도 여

지없이 깨버린다.

한영수의 사진이 귀하고 또 고마운 건 바로 이런 시선 때문이다.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사건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시 한 번 힘을 낸다. 그들이 한껏 멋을 부리고 사랑을 하며 자신들의 청춘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를 남겨준 것이다. 심지어 당시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놀라운 구도와 앵글로 서울 멋쟁이들의 모습을 세련되게 담아냈다. 사보이 호텔 건물 구멍 사이로 보이는 커플의 모습은 손에 든 한약재 꾸러미만 아니라면 유럽의 어느 도시 풍경이라 해도 믿을 만큼 미학적이고 모던하다.

헝가리 사진박물관학자 김체슈 까로이는 한영수의 사진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영수 사진은 사각 프레임 안 어느 한 부분도 빈 곳이

없다. 계속 사진에 시선을 머물게 해서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거리의 낯은 간판까지도 둘러보게 만든다.” 한영수는 35mm 라이카 카메라를 즐겨 사용했는데 당시엔 보는 화각과 찍히는 화각이 달랐다. 하지만 그는 정확하게 사람들의 움직임을 잡아냈다. 남다른 시각으로 무수히 많이 연습한 결과일 것이다.

빈폴 팀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티셔츠에 사진이 프린트됐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놀랄 만큼 세련된 서울 멋쟁이 사진들

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초상권’이 조심스러워 포기하고, 한강에서 수영과 스케이트를 즐기는 도시 풍경만 옮길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 속에서 선택한 총 10컷의 사진은 현재 빈폴 티셔츠와 스카프에 프린트돼 있다. 빈폴 팀의 노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단순히 아티스트의 사진을 제품에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티셔츠 뒤에 한영수 작가의 사진 연대기를 따로 프린트했다. 지금까지 쏟아진 수많은 협업 프로젝트 중 이렇게 아티스트의 일생과 작품에 존중과 가치를 표한 브랜드는 없

▲ 빈폴X한영수 협업 제품

었다.

한선정 대표는 “원로 작가의 사진인 데다 흑백사진이고 배경은 50~60년대.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현대 패션 브랜드가 이런 사진들을 선택해서 협업한 것은 국내에선 첫 시도여서 모든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작가의 작품을 존중하고 새로운 기획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현재 위축돼 있는 다큐 사진가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영수 Han Youngsoo, 서울 명동 Meongdong, Seoul 1958. 한영수문화재단 제공



▲ ©한영수 Han Youngsoo, 서울 한강 Hangang River, Seoul 1959. 한영수문화재단 제공



▲ ©한영수 Han Youngsoo, 서울 Seoul, 1956~1963. 한영수문화재단 제공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모는 현재의 삶만큼 중요합니다.

Pre-planning으로, 당신의 뜻 대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입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를 Eden Brook과 함께 Eden Brook은 최근 캘거리 한인회와 Arbor Alliances Program을 통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저희 전문 카운슬러들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Corinne Wiebe T.403-973-9051

Eden Brook Memorial Gardens & Funeral Home
by Arbor Memorial
 17th Ave SW & Lower Springbank Rd, Calgary
 T. 403-217-3700 www.edenbrookcemetery.ca

